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이희영† · 안삼태* · 최태진*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Hee-Yeong LEE† · Sam-Tae AHN* · Tae-Jin CHO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12, 2003 / Accepted November 23, 2003)

Abstract

In this study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were analyzed.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y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into categories and prioritize concerns in terms of frequency parent indicated. Fifty-two parents whose children are gifted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open-end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and sixteen subcategories, and personal trait among six categories was most frequently indicated by parent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with several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Gifted children,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Gifted counseling

I. 서론

영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1983년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과 그 후 외국어 및 예술 고등학교 등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고, 대학입시라는 제도에 묶여 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해 오고 있으며, 높아진 국가적

관심은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교육법 제 154조 2항에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8년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조기진급의 횟수 제한을 없앴으며, 1999년 12월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에 법률 6215호로 공포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교육청 및 대학에 67개의 영재교육원이 설치돼 약 8000명의 학생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51, hylee@pknu.ac.kr

들에게 방과후, 방학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영재학급이 초등학교 47개반 1,210명, 중학교 64개반 428명, 고등학교 23개반 455명 등 총 134개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이러한 최근 관심 표명은 국가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재교육은 고급 인력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재아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은 국가적인 필요성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고, 그런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도 영재 관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재교육은 영재아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영재들이 자신의 영재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적능력의 촉진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Cross, 1997). 영재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은 일반 아동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특성은 영재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 여러 연구들(윤여홍, 1996; Altman, 1983; Colangelo, 1991; Delisle, 1990; Fimian, 1988; Webb, 1993)이 영재들이 갖는 심리적 특성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성장의 비동시성(Dyssynchrony)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지적 능력과 미세 운동 기술간의 불일치, 지적능력과 정서발달간의 불일치 및 또래와의 사회적 발달 불일치(Terrassier, 1985), 완벽주의와 이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와 이에 기인한 낮은 자아개념과 저성취(Whitmore, 1980), 높은 이상과 관련한 실존적 우울(Webb, Meckstroth, & Tolan,

1982)등이 그 몇 가지 예이다. Coleman (1980)은 이러한 발달 특성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영재아의 20%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녀 발달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은 영재아를 둔 부모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Clark, 2002; Olszewski-Kubilius, 2002; Silverman, 1993)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영재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되는 데에는 영재아의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Kleine & Webb, 1992; Little & Scott, 1990; Silverman, 1997), Bloom(1985)에 의하면, '영재성이 꽃피는 데는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p. 3)고 한다.

사실상 영재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전술한 영재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일반 부모들과는 다른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Braggett, Ashman과 Noble(1983)은 자녀가 영재라고 믿고 있는 부모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크게 3가지 영역(지식과 정보 부족, 학교와 관련된 문제, 심화활동과 관련자료 부족)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영재 부모들에 대해 조사했던 많은 상담자와 심리학자들(Foster, 1993; Fouse, Beidelman & Morrison, 1995; Greenstadt, 1981; McMann & Oliver, 1988; Robinson, Roedell & Jackson, 1979) 역시 Braggett 등에 의해 언급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 영재아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영재성과 영재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문제이다. Braggett 등(1983), McMann과 Oliver(1988), 그리고 Wolf와 Stephens(1985)는 공통적으로 영재아의 부모들은 영재성과 영재자녀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Wolf와 Stephens는 영재자녀들이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성장 유형과 흥미가 어떻게 다른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영재성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McMann과 Oliver는 영재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재들이 보이는 높은 에너지 수준이나 민감성과 같은 부분적인 특성들만에 근거하여 ADHD로 오진되는 사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오와 지역 교육 연구소(Iowa Area Education Agency)에서 1000여명의 영재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영재 자녀와 관련되는 특별한 양육기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Gogol & Hewett, 1985).

둘째,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교육제도나 학교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영재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겪는 문제와는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Robinson, Roedell과 Jackson (1979)의 조사에 의하면,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반학교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자녀의 우수한 학습능력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에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ouse, Beidelman과 Morrison(1995)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들은 영재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가치관이나 교육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Goertzel과 Goertzel(1962)은 아동기 때 영재로 분류되었던 20세기의 저명인사 400명의 정서적, 지적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3/5이상이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따분한 교육과정, 자신을 이해 못하는 교사,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친구들로 인하여 학교 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재 자녀를 조력하기 위한 관련 자료나 정보의 부족 문제이다. 비록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영재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자료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학자들(Braggett et al., 1983; Foster, 1993; Greenstadt, 1981)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이들도 영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을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의 세 가지 문제 영역 외에도 학자들은 영재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로 영재 자녀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Chamrad, Robinson & Janos, 1995; Cornell, 1983), 영재아의 행동 관리와 관련된 문제(Okagaki & Divecha, 1993; Page, 1983; Takacs, 1986), 영재아를 둘러싼 특수한 개인적·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Baldwin, 1994; Grenard-Moore, 1984)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Silverman(1997)은 30년간에 걸친 영재 부모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영재 부모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12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차례로 열거해 보면, 영재아와 일반아의 발달상의 차이점, 아이의 장·단점의 평가 문제,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극 제공, 적절한 학교 선택, 학교 관계자로부터 조력 획득, 활용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 획득, 저성취와 동기 부족 문제의 대처, 아이가 보이는 완벽주의, 높은 민감성, 내향성, 우울증의 대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조력 제공, 영재 자녀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성원들간의 긴장, 의존적 자녀의 독립성 향상, 영재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학자들이 영재아의 부모들이 자녀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영재아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나, 이들의 분류는 주로 개인적인 양육 경험이나 임상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분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은 일찍이 Shore, Cornell, Robinson과 Ward(1991)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기본적인 분류나 기초 연구조차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영재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외국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재아에 대한 이해방식 또한 다르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영재아 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분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재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재자녀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또한 이들 고민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영재 자녀와 관련된 주요 고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와 둘째,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고민의 영역별 및 유목별 사례 분포는 어떠한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겪고있는 독특한 영재자녀 관련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을 조력하기 위한 여러 처치방법이나 교육적 책략 구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영재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영재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 영재 표본집단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 교육대학교 부설 영재센터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한 52명의 고민 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

였다.

이 영재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과학영재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선발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학교장이나 과학영재교육원장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전공영역별로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여 입학 정원의 200%를 선발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자체개발한 창의적 사고력 검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입학 정원의 100%를 총점의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전공영역별 문제해결력 검사와 창의적 사고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의 경우 우수집단내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보다 곤란도가 높은 문항으로 자체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 부모들(부, 6명; 모, 46명)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36세~46세에 분포되어 있고, 학력은 고졸 7명, 대졸, 39명, 대학원졸이 6명이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 32명, 전문직 13명, 사무직 2명, 자영업 3명, 기타 2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14명, 불교 3명, 천주교 7명이었고 나머지 17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자녀(남학생, 38명; 여학생, 14명)의 연령은 10~11세가 13명, 12~13세가 39명이었다.

2. 측정도구

영재 자녀를 둔 부모(이하 영재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영재아와 영재부모에 대한 인적사항과 고민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였다. 고민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조사의 목적과 함께 간단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며, 「자녀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하는 개방형의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영재 부모들의 고민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빈약하여 특정한 요인을 설정하기가 어려웠고, 둘째,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

가 없어 기존의 자료에 의존하여 폐쇄형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응답의 내용이나 응답 유목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가지 형태의 고민사례 및 진술방식을 안내문에 예시로 첨부하여 반구조화함으로써 응답내용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영재 부모들의 고민 유형은 연구문제에 따라 유목과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내용분석법(송인섭, 1997)에 따라 3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재 부모들의 응답을 분류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기초로 평정자간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일치도 계수는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분류유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연구자 3명이 서로 협의하여 최종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은 부모들이 제시한 진술문을 문장 중심으로 세분화한 다음 이를 내용분석법의 절차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문장이 영재아와 관련된 고민 문제를 포함하되 사용한 단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나 주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가능한 세분화하여 고민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고민내용들을 상호배타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세부 유목과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유목 분류의 경우 단어,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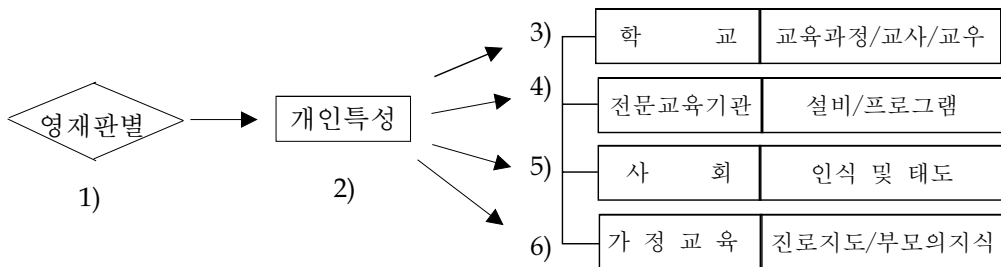
대상, 항목들로 분류한 까닭은 이러한 분석 단위들이 부모들의 가치나 태도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가치나 태도가 고민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문제 2>는 유목과 영역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민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영역 분류

응답자료의 분석결과 영재아를 둔 부모들의 고민은 크게 6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들 영역은 내용상 17(기타 포함)가지의 유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먼저, 이들 6개 영역을 영재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관련지어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들 6개 영역은, 영재아 판별과 관련된 고민, 영재아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고민, 영재아에 대한 교육환경과 관련된 고민, 학교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고민, 영재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고민,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문제와 관련된 고민이었다. 6개 영역에 포함된 세부 유목의 고민을 수집된 질문지에 대한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가 영재로 판별되



<그림 1> 영재아 부모들의 6가지 고민 영역.

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재 아동들은 영재기관에 의하여 3단계에 걸쳐 선발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준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거나 신뢰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부모들은 영재 판별을 위한 권위 있는 기관이 없다는 데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몇 가지 임의적인 영재 판별도구와 판별준거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미루어 볼 때, 영재판별 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은 곧 영재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과도 이어지며, 가정에서의 적절한 교육책략의 선택과 진로지도 고민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들이 갖는 개인적 특성 특히 성격이나 행동상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이 고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들(Clark, 1992; Hewitt & Flett, 1993)이 지적하듯이,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 완벽주의 성향이나 이에 기인한 자녀의 스트레스, 아이가 보이는 개인성향, 특정 관심사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함께 비관심 분야에서의 주의산만과 집착력 부족 등은 주요한 고민 거리였다. 이에 덧붙여,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적 편향(과학이나 수학분야)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관심분야 이외에서는 흥미가 없거나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셋째, 자녀들이 부딪히는 외부환경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고민의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획일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에 대한 불만족 및 영재의 지적·행동적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편견, 그리고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이 대표적인 고민 유형이었다. 현행 초등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교과와 내용으로 초등 보통 교육을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아이의 학습의욕이나 흥미의 상실을 걱정하였으며, 많은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

이나 그룹별 학습, 원리중심 수업 등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아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귀찮은 아이, 수업시간 중 겸손하지 못한 아이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특히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아이 스스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소극적이 되는 등의 모습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영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정서적 성숙이 지적 능력에 비해 떨어짐으로써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정서적, 사회적, 대인관계적 개념을 다루고자 할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Hayes & Sloat, 1989; Kerr, 1991)는 지적과도 일치한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학교 부적응 문제로 홈스쿨링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교육에 불만족하는 부모들은 영재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찾았으며 어떤 경우 보상적인 만족감이나 다행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고민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미흡에서 오는 불만족, 자녀가 영재센터에 다님으로써 오히려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 유사한 또래들간의 어울림에서 빛어지는 또 다른 역기능적 스트레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은 한결같이 국가나 정책차원에서의 영재교육정책,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호소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사례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였으나 부모들은 영재아와 영재 부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인식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다. 영재아를 격려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에 대한 아쉬움, 영재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을 찾아 애쓰는 부모들에 대하여 한낱 부모의 극성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하여 부모들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결과 어떤 부모들은 차라리 아이가 평범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까지도 피력하였다. 영재 자녀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모들의 자녀

에 대한 과잉기대, 과도한 교육열이라는 풍토와 연관되어 진지한 교육열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우리사회만의 독특한 문제로 여겨진다.

여섯째, 영재 부모들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영재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 진로지도 문제 등이었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조언을 해야할지, 부모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가정에서의 최선의 지도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로서의 조력에 한계를 느낀다거나 혹은 자녀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누구와 상담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은 소극적으로는 평범한 부모라 자녀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반응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정보와 자료를 찾고자하나 자료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영재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갖는 고민 영역들은 상호 복합적인 것으로써, 영재자녀가 지니는 개인적 특성에서부터 가정교육, 사회인식에 이르기까지 영재자녀를 둘러싼 전체 생활영역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유형별 분포 및 특징

수집된 설문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6개 영역 및 세부 17유목별로 분포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의 개인특성 요인에 따른 고민이 전체 사례수의 31.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 요인(27.91%),가정교육 요인(17.05%), 영재판별 요인(12.40%), 전문교육 기관 요인(10.08%), 사회인식 요인(1.5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부모들의 고민이 주로 자녀들이 보이는 완벽

<표 1> 영재아 부모들의 6개 고민 영역과 17개 세부 유목

6 영역	17개 유목(유목수)
1) 영재 판별 요인	영재 판별에 따른 의문 (1)
2) 개인 특성 요인	완벽주의/주의산만/과제집착력 부족 / 개인성향/ 적응 스트레스/사고 몰입 (6)
3) 학교 요인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불만족/교사의 이해부족 /교우관계 부적응(3)
4) 전문교육 기관 요인	영재 교육기관 및 설비나 프로그램 미비 (1)
5) 사회 인식 요인	영재 및 영재부모에 대한 편견 (1)
6) 가정 교육 요인	진로지도문제/ 부모의 재정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식 /정보 부족 (4) 기타 (1)

주의, 주의산만, 적응 스트레스, 사고몰입 등과 같은 심리적이거나 성격적인 특성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영재부모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지도 등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장면에서 영재부모들이 지니는 고민 유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 상담장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지식과 정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부모-영재자녀 관계에서의 대처기술 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표 3>은 부모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민 수에 따라 6개 영역별로 빈도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들이 2가지의 고민을 제시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36.54%), 3가지 이상의 고민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 또한 42.31%나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고민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영역1에서 영역6에 이르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부모는 1사례 (1.92%)에 불과하였다.

고민 수에 따른 내용별 특징을 살펴보면, 1가지

<표 2> 6개 영역 및 세부유목별 고민 사례 및 백분율
 <표 3> 영재 부모들의 고민 사례수에 따른 빈도분포

영역	유 목	유목별	영역별	영역	유 목	유목별	영역별
영재환별	N	%	누적 사례수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재환별	관별의분			영역5	영역6	기타	총계
0가지	1	(1.92)	(100.0)	192	(12.40)	0	0
1가지	40	(19.23)	311	(7.50)	21	(21.15)	2
2가지	19	(36.54)	730	(57.69)	8	11	3
3가지	11	(21.15)	1740	(78.84)	2	4	1
4가지	4	(7.57)	948	(92.30)	40	2	6
5가지	3	(5.77)	351	(98.03)	2	4	3
6가지	1	(1.92)	52	(100.0)	0	3	3
전체	52	(100.0)	20.0	52	16	40	36
*영역	1. 영재관찰 요인	2. 개인특성 요인	3. 학교 요인	정보 부족	교육기관	요인	
	5. 사회인식 요인	6. 가정교육 요인	(기타)				
학교	교육과정·	19	36				
요인	방법 불만족	(52.78)	(27.91)	6개 영역	17개 요인	130	130
	교사의	7					
	이해부족	(19.44)					

고민을 겪는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주로 영재아의 개인특성이나 학교요인과 관련한 것인 반면, 2가지 이상의 고민을 겪는 부모들은 영역1~영역6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형태로 고민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특성요인(영역2)과 학교요인(영역3)의 경우, 고민이 몇 개이든 항상 제기되는 고민으로써 모든 영재 부모들에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영재 부모들이 제시하는 고민들은 단순한 일상적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하여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재 부모들의 고민유형은 6개 영역(영재 판별 요인, 개인특성 요인, 학교 요인, 전문교육기관 요인, 사회인식 요인, 가정교육 요인)과 17개 세부 유목(표 2 참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영재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비율은 개인특성 요인, 학교 요인, 가정교육 요인, 영재판별 요인, 전문교육기관 요인, 사회인식 요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 검토해 보고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 영재 부모들의 고민 유형은 6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Braggett 등(1983)이 구분한 세 가지 영역에만 국한하여 비교해 보면, 첫째, 영재성이나 영재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6개 영역중 영재 판별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들은 영재성이나 영재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함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Lester와 Anderson(1981)에 의하면,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영재라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자녀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회피하려 한다고 한다. Lester와 Anderson(1981)은 이러한 부모를 “자각없는 부모(unaware parents)”라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영재아 부모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학교 관련 문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 요인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 요인은 고민의 출현 빈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재아 부모들에게 자주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획일적인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불만족 및 영재의 지적·행동적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집단 따돌림 현상과 관련하여 볼 때 영재아 또한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외국에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영재아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고민이라 여겨진다.

셋째, 관련 자료나 정보의 부족 문제는 본 연구의 가정 교육 요인 중 부모의 교육적 지식 및 정보 부족 유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진 외국에 비해 영재 교육 기관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한 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지식·정보부족은 학교 교육과정 불만족과 더불어 가장 빈도가 높은 유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자녀를 돕기 위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욕구는 자녀의 진로지도 문제와 맞물려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6가지 영역과 Braggett 등(1983)이 제시한 3가지 영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볼 때, Braggett 등의 분류 방식은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6가지 영역 중 단지 3영역만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내용 또한 외부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Braggett 등의 분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가장 중요한 고민 유형으로 나타난 개인 특성 요인, 사회인식 요인, 가정교육 요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Braggett 등에 분류 방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요인은 영재아 부모의 고민과 관련하여 수행된 개별적인 연구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인특성 요인의 경우, 영재아의 행동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Okagaki & Divecha, 1993; Page, 1983; Takacs, 1986)과 유사하며, 가정교육 영역의 문제는 영재 자녀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Chamrad, Robinson과 Janos(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사회인식 요인은 특수한 개인적·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Baldwin(1994)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민유형들과 오히려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부모들의 고민 유형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재아 부모의 고민 유형을 12가지로 구분

하여 제시한 Silverman(1997)의 분류와 비교해 보면, 역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Silverman이 제시한 고민 유형 중 영재아와 일반아의 발달사의 차이점,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극 제공, 저성취와 동기부족의 대처, 완벽주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조력 제공, 영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고민 내용은 본 연구의 세부 유목과 유사하나, 나머지 유목은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영재 판별, 영재아와 영재아의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영재아가 갖는 적응 스트레스 같은 유목은 Silverman의 분류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중 특히 영재와 영재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영재아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부모를 극성으로 이해하는 풍토)에서 비롯되는 고민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 영재 부모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 부모들의 구체적인 고민 유형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아마도 영재 부모들의 고민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raggett 등(1983)과 Silverman(1997)이 영재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고민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요인은 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영재아 부모와의 임상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얻은 결과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은 영재아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Braggett 등과 Silverman은 단지 영재아 부모의 고민 유형을 나열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영재아 부모의 고민 유형을 내용분석법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전 생활 장면으로 유목화 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을 통해 고민 유형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 특성 요인과 학교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민이 전

체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영재아 부모들의 상담이나 교육에서 이 두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상담 및 부모 교육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아 부모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영재아 부모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영재아 부모 상담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호소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소책자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여 영재 부모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중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처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상담자 교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재학교에는 영재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상담자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상담자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상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들 중에서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사려된다.

위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그 결과가 실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적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영재 자녀를 돕고 싶어 하는 고민을 조사하였고, 일반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된 고민들이 일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과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영재 부모와 일반 부모와의 비교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초등 영재들의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재아들의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제한됨으로써, 부모들의 문제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부모들의 자녀들이 갖는 연령적인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교가 아닌 영재(예컨대 청소년 영재)들의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청소년 영재 부모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재 부모들의 고민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영재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영재 부모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분류만 하였지 개별 문제 영역에 대한 처치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각 문제 영역별 처치 전략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수학, 과학 분야의 영재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영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볼 때, 우리나라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은 외국 부모들의 고민 유형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처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송인섭, 연구방법론. 서울: 상조사, 1997.
- 윤여홍,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 연구: 정신 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 pp.53~71, 1996.
- Altman, R.,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search model. *Roeper Review*, 6, pp.65~68, 1983.
- Balwin, L. J., Portraits of gifted/learning disabled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1994.
- Bloom, B.,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antine Books, 1985.
- Braggett, E. J., Ashman, A., & Noble, J., The expressed need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 pp.80~84, 1983.
- Chamrad, D. L., Robinson, N. M., & Janos, P. M., Consequences of having a gifted sibling: Myths and realities. *Gifted Child Quarterly*, 39(3), pp.135~145, 1995.
- Clark, B., Growing up gifted. New York: Merrill, 1992.
- Colangelo, N. M.,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273~284). Boston: Allyn & Bacon, 1991.
- Coleman, D., 1528 little geniuses and how they grew. *Psychology Today*, 13(9), pp.28~43, 1980.
- Cornell, D. G., Gifted children: The impact of positive labeling on the family system.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53, pp.322~335, 1983.
- Cross, T. 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educating gifted students. Peabody

- Journal of Education, 72(3&4), pp.180~200, 1997.
- Delisle, J. R., The gifted adolescent and risk: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suicide prevention among gifted youth.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pp.121~228, 1990.
- Fimian, M. J., Predictor of classroom stress and burnout experienced by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 25, pp.392~405, 1988.
- Foster, S. M., Meeting the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preschoolers. *Children Today*, 22(3), pp.28~31, 1993.
- Fouse, B., Beidelman, V., & Morrison, J., Keeping peace with parents of the gifted. *Gifted Child Today*, 18, pp.39~41, 1995.
- Goertzel, V., & Goertzel, M. G., *Cradles of eminence*. Boston: Little Brown & Co, 1962.
- Gogol, E. M., & Hewett, G., What parents are saying. *Gifted Child Today*, 8, pp.7~9, 1985.
- Greenstadt, W. M., Parents of gifted children: Coping with anxieties. In B. S. Miller & M. Price (Eds.), *The gifted child, the family and the community*(pp.157~169). NY: Walker & Co, 1981.
- Grenard-Moore, S. J.,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families having normal disabled or gift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1984.
- Hayes, M. L., & Sloat, R. S., Suicide and the gifted adolescent.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pp.229~244, 1989.
- Kerr, B. A., *A handbook for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1.
- Kleine, P. A., & Webb, J. T, Assessing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In J. Culbertson & D. Willis (Eds.), *Testing young children*(pp.383~407). Austin, TX: Pro-Ed, 1992.
- Lester, C. F., & Anderson, R. S., Counseling with families of gifted children: The school counselor's role. *School Counselor*, 29, pp.147~151, 1981.
- Little, M. B., & Scott, M. E., Parenting: Helping gifted-talented-creative children reach their potential. *The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15, pp.143~155, 1990.
- McMann, N. & Oliver, R., Problems in families with gifted children: Implication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pp.275~278, 1988.
- Okagaki, L. & Divecha, D. J.,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 Olszewski-Kubilius, P., Parenting practices that promote talent development, creativity, and optimal adjustment. In M. Neihart, S.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 (Eds.),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pp.205~212). Waco. TX: Prufrock Press, 2002.
- Page, B. A., A parent's guide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5(4), pp.39~42, 1983.
- Robinson, H. B. & Roedell, W. C. & Jackson, N. E.,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In A. H. Passow (Ed.), *The gifted and the talented: Their education and development*. The 78th Yearbook of the Society for the

- Study of Education, Part I (pp.55~7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Shore, B. M., Cornell, D. G., Robinson, A., & Ward, V. S., Recommende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A critical analysis.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1.
- Silverman, L. K., Counseling families. In L. K. Silverman(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pp.151~178). Denver, CO: Love Publishing, 1993.
- Silverman, L. K., Family counseling. In N. Colangelo, & G.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2nd ed., pp.307~320). Boston: Allyn & Bacon, 1997.
- Takacs, C. A., Enjoy your gifted chi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6.
- Terrassier, J. C., Dyssynchrony-uneven development. In J. Freeman(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pp.265~274). NY: John Wiley & Sons, 1985.
- Webb. J. T.,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2nd ed., pp. 525~538). NY: Pergamon Press, 1993.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Dayton: Ohio Psychology Press, 1982.
- Whitmore, J. R.,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yn & Bacon, 1980.
- Wolf, J. S. & Stephens, T. M.,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nd youth. In R. H. Swassing (Ed.), Teaching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Ohio: Charles E. Merrill, 1985.